

# 고창군 '100세 시대' 평생교육 정책 본격 추진

### 교육부 주최 '평생학습도시' 지정 증서·동판 수여 농촌활력CEO프로그램·문해교육사 양성 등 노력

고창군이 2019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동판을 전달받고 '100세 시대'에 걸맞은 평생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시 양재aT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전'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 증서와 동판을 받았다.

평생학습도시 동판 및 증서 수여식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했다.

고창군을 비롯해 서울 성동구, 부산 동래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광주시, 경기 하남시, 전남 해남군 등 7개 도시가 올해 신규로 지정됐다.

고창군은 평생학습 조례제정, 전문인력 확충,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고창군은 농촌활력 CEO프로그램

운영, 시니어소득창출 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사 양성을 통한 찾아가는 문해교육 실시 등 평생학습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대폭 늘렸다.

또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등 군민이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재생 리더 '농부명장' 양성, 한반도 첫 수도 역사 생태 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 스스로 평생학습을 기획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평생학습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모든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요구에 맞는



유기상(가운데) 고창군수가 지난 14일 서울시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전'에서 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 증서와 동판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활발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만의 특성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함평 '국향대전' 내일 개막

### 내달 3일까지 엑스포공원에서...역세동산 등 볼거리 풍성

가을 국화축제의 대명사인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17일간 함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국향대전은 '임시정부 100년! 백만송이 함평 국화와 함께'라는 주제로 타 지역보다 1주일 먼저 시작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기획 작품들이 새롭게 선보인다.

축제장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중앙광장에는 실제 크기의 독립문(높이 14.28m)과 백범 김구상, 매화버들 등의 대형 국화 조형물 7점이 설치된다.

4계절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다양한 조정 작품과 핑크뮬리 꽃길, 국화동산 등도 축제장 곳곳에 새로 조성했다.

오직 국향대전에서만 볼 수 있는 한 줄기 1538 송이의 천간작과 황금역새, 핑크뮬리 등으로 꾸며진 역세동산,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국향대교와 9층 꽃탑 등도 올해 역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국향대전은 함평 축제 최초

로 야간개장을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축제장 야간개장사업이 올해 일부 마무리되면서 임시 개장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경관조명을 비롯한 야간조형물 총 600여 점 정도를 설치했다.

야간개장은 축제기간 내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 운영하며 매주 토요일에는 건물 외벽에 LED조명을 켜는 '미디 어 파사드'를 통해 임시정부와 국화, 함평 나비 등을 색다르게 표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나비축제 때 큰 관심을 끌었던 황금박쥐 조형물에 이어, 박쥐가 갖는 오복(장부, 부귀, 강령, 유효덕, 고종명)을 함축한 '오복포란'이 새롭게 전시되면서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나운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국향장으로 물론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수준 높은 국화작품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평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가을의 낭만과 추억을 가득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은하 기자 hwang@



# 영광군, 참조기 해상가두리 양식어업 확대

### 향화도 일대 면허 신규 발급... '경영난' 굴비가공업체 지원

영광군이 참조기 부족과 원가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굴비가공업체 지원을 위해 '참조기 해상가두리 양식어업' 확대에 나섰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해상가두리 양식장(사진) 적지 조사를 통해 최종 적합 판정을 받은 향화도 일대 바다 수면 2ha에 대해 '참조기 해상가두리 양식어업 면허'를 신규로 발급했다.

신규 면허 양식장은 어장시설을 정비한 후 2020년 5월부터 참조기 종자를 인식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하게 된다.

참조기는 고수온과 질병에 강하고, 6개월 단기 양식만으로도 대량생산이 가능해 굴비가공 어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영광 지역 참조기 양식은 육상

수조식과 바닷가에 독을 쌓아 만든 축제식 양식장을 비롯해 인근 지자체인 함평, 신안 등지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위탁해 서 키우는 방식에만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해상가두리 어업면허 신규 발급으로 참조기 양식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굴비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조기 자원량 감소로 위기를 맞은 영광군은 굴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참조기 양식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참조기 연구 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참조기 양식을 위한 연구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

# 순창군, 고추 유산균 발효 '매운소스' 출시

### 고기·야채에 곁들일 수 있게 만든 만능 소스... 맵고·자극적인 맛

소스 산업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순창군이 '순창매운소스' (사진)를 개발해 출시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매운소스'는 순창군과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공동개발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순창성가정식품이 생산한다.

이 소스는 '어라차차 솟아나라 요리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발됐으며 고기나 야채에 곁들일 수 있게 만들어 어느 요리나 어울리도록 만든 만능 소스

다.

국산 홍고추와 청양고추를 유산균으로 발효하고 이를 이용한 독특한 매운맛이 주요 특징이다.

맵고 자극적인 맛이 외식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점차 차별화된 매운맛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걸맞고, 소스에 발효라는 건강함을 더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 계획이다.

또 매운맛과 달콤한 맛, 신맛이 서로



어울려 튀김 요리나 볶음밥, 피자, 치킨 등 일상적인 요리는 물론 기호에 따라 가

자료를 짝어 먹어도 잘 어울린다는 것이 군 측의 설명이다.

순창매운소스는 18일부터 3일간 열리는 순창소스세계박람회 박람회장 내 시식 부스에서 관람객들에게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시식 행사 및 판매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군은 장류를 이용한 소스 6종도 상품화해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매운소스는 2년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소스로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 소스가 주요 특징으로 향후 매운맛을 단계별로 조절해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 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자 일제 단속

### 번호판 영치 등 263건에 4600만원 징수

정읍시가 '2019년 자동차세 체납자 일제 단속'을 실시해 번호판 영치와 영치 예고 263건에 체납액 4600만원을 징수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5일 간의 영치 예고와 이어 23일부터 읍·면·동 자체 5일간의 영치예고를 했다.

단속에는 시와 읍·면·동 세무공무원 20명은 최근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 영치와 영치 예고 263건을 실시하고, 체납액 약 46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 9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인 46억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손창욱 정읍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지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새만금개발청, 국립 새만금박물관 건립 추진

### 역사·문화·미래 체험...연면적 5440㎡ 규모 내년 상반기 착공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과 주변 지역의 역사, 문화, 미래를 보고 체험하는 국립 새만금박물관 건립 계획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만금박물관은 새만금 유역의 역사, 고고학, 민속풍습과 함께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후의 생활과 환경 변화상을 보여주는 시설이다.

새만금박물관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대에 전시장, 수장고, 연구교육시설, 부대시설 등을 갖춰 연면적 5440㎡ 규

모로 건립된다.

새만금박물관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새만금 관련한 물품과 역사물 및 전시자료 등을 기증받을 계획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박물관을 새만금 역사와 주변 지역의 역사를 알리는 명소가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

##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